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왼쪽), 박성현(가운데), 김인경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2승 사냥에 나선다.

마지막 메이저권은 '나야 나'

LPGA 유소연·박성현·김인경, 내일 에비앙 챔피언십 대격돌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 첫 승 겨냥... 태극낭자 메이저 4승 기대

한국 여자 골퍼선수들은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역대급 성적을 내고 있다. 25개 대회 중 13승을 거두며 단일 시즌 최다승인 2015년 15승에 단 2승차로 접근했다. 메이저 대회에서도 초강세다. 13승 중 메이저 대회에서만 3승을 쓸어 담았다. 시즌 전체 일정 가운데 4분의 1 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5대 메이저 대회 중 마지막 대회를 남겨 놓고 있다.

태극낭자 군단은 14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470야드)에서 열리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65만 달러)에 출전, 시즌 14승이자 메이저 4승에 도전한다.

2000년 LPGA 투어에 편입된 뒤 2013년부터 메이저 대회로 승격한 에비앙 챔피언십은 2010년 이후 한국 선수들과 좋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

투어 편입 후 10년 동안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지만 2010년 신지애(29)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등극한 뒤 2년 주기로 챔피언십을 배출했다.

2012년 박인비(29·KB금융그룹), 2014년 김효주(22·롯데),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인지(23)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메이저 첫 승을 거둔 유소연(27·메디힐), 김인경(29·한화),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진정한 메이저권에 등극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랭킹 1위이자 시즌 첫 번째 메이저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한 유소연은 최근 부진을 털고 시즌 3승 수확에 나선다.

유소연은 7월 US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를 한 뒤로 최근 4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컵비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는 컷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상금랭킹에서 박성현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는 2위 렉시 톱슨(미국)에 턱밑까지 쫓기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12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세계랭킹도 위협 받게 된다.

유소연은 지난해 공동 2위를 한 만큼 에비앙 대회를 통해 최근 부진을 털고 각 부문 선두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작년 비회원 자격으로 이 대회 준우승하며 미국 진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박성현은 올해는 메이저권 자격으로 대회 우승에 나선다.

지난달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시즌 2승을 달성한 뒤 3주 동안 휴식을 취하며 에비앙 대회를 준비했다.

이번이 없는 한 신인왕 등극이 확실시 되는 박성현은 상금랭킹 선두에 올라 있다. 평균타수 부문 2위, 올해의 선수 3위 등 주요 부문에서 타이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40년 만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 등 시 석권이라는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간다.

올 시즌 유일하게 3승을 거두고 있는 '브리타시 여자오픈' 챔피언 김인경은 국내 대회를 소화하며 샷감각을 조절하기도 했다.

부상과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대회 출전 수가 적어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불리한 입

장이지만 에비앙 대회를 포함 남은 시즌 중 우승을 추가할 경우 경쟁에 뛰어날 수 있다.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도 지난해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에비앙 대회 2연패를 정조준하고 있다.

올 시즌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며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한 전인지는 대회 2연패와 함께 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를 털어내려고 한다.

전인지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역대 메이저 대회 최소타 신기록(21언더파 268타)을 세웠다. 올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또 한 번 역사를 쓰게 된다.

이밖에 최강 아마추어에서 여전한 프로가 된 최혜진(18·롯데)이 프로 데뷔 후 두 번째 공식 대회로 에비앙에 출전한다.

최혜진은 아마추어 시절 유럽프로골프 투어(LET)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US여자오픈에서는 깜짝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해외 대회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한 상황이다.

한국 선수들의 우승 전선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디언민인테코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한 렉시 톱슨이다.

톱슨은 상금랭킹 3위, 평균타수 1위, 올해의 선수 2위에 올라 있다. 톱10 피니시들은 유소연과 함께 유일하게 50%를 상회한다.

톱슨이 에비앙 대회 타이틀을 가져간다면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역대급 활약에도 주요 부문 타이틀을 손에 넣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멀티히트+2타점 활약 팀 연패 탈출

시애틀전 2번 타자 우익수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1삼진기록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히트 포함 2타점, 1득점 활약으로 팀의 연패 탈출을 도왔다.

추신수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8월 한 달 동안 3할(0.314)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던 추신수는 9월 들어 타격감이 들쭉날쭉 했지만 모처럼 2안타 경기를 하며 타격감을 조절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61에서 0.263(490타수 129안타)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즌 타점은 70개로 늘었고 득점은 88개가 됐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투수 아리엘 미란다의 초

구를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후속 타자의 볼넷과 2루타로 홈을 밟아 팀의 선취점을 올렸다.

2-1로 앞선 2회에는 1사 1, 2루에서 미란다를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직접 맞추는 큼직한 타구를 날려 2루에 안착했다.

그 사이 주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4-1로 점수를 벌렸다.

3회 시애틀의 반격으로 4-3, 1점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상대 추격의 맥을 끊었다.

추신수는 이후 두 타석에서는 1루수 팽발과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소득이 없었다. 8회 수비 때 교체되며 먼저 경기를 마쳤다.

추신수의 활약으로 텍사스는 5-3으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김민근기자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히트 포함 2타점, 1득점 활약으로 팀의 연패 탈출을 도왔다

유럽과 주축될 신태용호 2기 25일 발표

2018 러시아월드컵 준비에 착수한 신태용호 2기가 오는 25일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설 선수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된 신태용호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전력 다듬기에 나선다.

신태용호는 다음달 7일 모스크바에서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를 상대한 뒤 3일 후 프랑스 칸에서 튀니지와 격돌한다.

월드컵 현장을 미리 경험하고, 유럽(러시아)과 아프리카(튀니지)의 축구를 접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일정이다.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안방만 벗어나며 출전을 펼쳤던 만큼 원정 경기 적응 해법 또한 찾아야 한다. 선수단은 유럽과 위주로 꾸려진다.

신 감독은 "최종예선 때문에 K리그가 많은 희생을 했다. 대표팀도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면서 K리그의 차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최종예선 막판 차출되지 않았던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과 이탈리아 세리에A에 진출한 이승우(사진, 헬라스 베로나)의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민근기자

샘 스미스, 새 싱글 '투 굿 댓 굿바이스' 발매

영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샘 스미스가 새 싱글 '투 굿 댓 굿바이스(Too Good At Goodbyes)'를 발매했다고 12일 유엔비블뮤직이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광고에도 삽입된 곡 '스테이 위드 미(Stay With Me)'와 더불어 '아임 낫 더 온리 원(I'm Not The Only One)' 등 스미스의 대표 곡을 만든 명 프로듀서 지미 네임스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곡이다.

리아나, 케이티 페리 등 팝 스타들과 작업한 슈퍼 프로듀서 듀오 스타게이트도 참여했다.

잔잔한 피아노 사운드와 함께 울려 퍼지는 스미스의 솔직한 보컬이 더해

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샘 스미스는 발매에 앞서 이 곡에 대해 "내 지난 연애 경험과 헤어짐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다"고 소개했다.

스미스는 2014년 발매한 데뷔 앨범 '인 더 롬리 아워(In The Lonely Hour)'가 세계적으로 1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특히 2015년 제 5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신인 등 본상 3개 부문과 최우수 팝 보컬 앨범 상까지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뉴시스



'아임 낫 더 온리 원'은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4'에 등장, 국내 주요 팝 음원 차트 19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